

신설될 「영문학입문」 교과목에 관한 교수내용 및 교수방법연구

김 명 렬 · 천 승 결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과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성된 과정이기도 하지만, 대학원과정과 연관해 생각하면 그것은 기초과정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원교육은 대학교육보다 한층 전문화되고 심화된 것이라고 말할 때, 대학과정에서는 해당분야의 주요한 지식을 넓게 섭렵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대학원과정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상 이같은 생각은 대부분의 자연과학분야와 많은 인문과학분야에 큰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문학분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문학에서는 그같은 일반론은 더구나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문학의 양적인 방대함에 있다. 영국문학 하나만으로도 어느 나라의 문학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터에 거기다 미국문학까지 곁들여 있으므로 영문학은 사실상 두 나라의 문학을 합친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는 양이 단 문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학생들의 영어 독해력이 다른 외국어에 비해 낫다고는 하나 대학과정에서 이같이 방대한 분야의 여러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다 맛볼수 있는 정도의 독서량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더구나 학점수가 대폭 줄어든 현재의 실험대학 과정에서는 학부학생이 영문학의 각시기를 한번씩 거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전공 63학점에서 필수과목이 8개로 24학점인데, 그중에서도 『영어회화』와 『영작문』등 영문학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을 빼면 6개 과목 18학점이 된다. 나머지 13개의 선택과목을 합친다 하더라도 불과 19개 과목밖에 안되며, 선택과목 중에서 또 어학강의를 빼면, 영국문학과 미국문학의 각세기 마다 한과목씩 돌아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현재의 학생들의 어학수준을 감안할때, 이정도의 과목수로는 영미문학의 주요작품들을 대충 짚고 지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학과정을 마치고 상당한 기간동안 혼자서 작품을 읽고 대학원에 오는 학생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와 같이 대학을 졸업한 후 곧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사실상 대학원에 와서 비로서 영문학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대학원교육은 그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처럼 일반적으로 낮은 학생들의 지식정도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전제로하고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방 그 격차를 메꾸느라, 또 일방 갑자기 폭주하는 독서량을 감당하느라 첫 두어 학기는 불안과 당혹에 휘말리게 되고, 나중에는 의욕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곤혹감을 안겨주는 것은 대학원에 와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학문적 연구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이다. 영문학을 학문적으로 전공할때에 거기서 분화되는 연구분야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작품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평가를 하는 일 뿐이다. 문학비평이 영문학 연구분야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것도 사실이다. 또한 문학비평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바, 학생들은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서도 역시 배울 기회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비평적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적기준(scholastic standards)에 맞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앞서 약속한 바와 같이 영문학의 경우 대학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작품을 접하게 하는 데에 주력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 목표하는 바가 학생들로 하여금 읽은 여러 작품들을 이해하도록 하는것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과하더라도, 대개 내용의 숙지 정도를 알기 위한 report나 감상문 정도의 글이지 학문적 연구의 소산은 논문의 체제에 맞추어 내기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문 한편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4학년이 되며 졸업에 임박하여 비로소 한편의 논문을 억지로 쓰게 된다. 이처럼 학문적 연구의 훈련이 백지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서 갑자기 고급한 수준의 논문을 과목당 최소한 한두 개씩 요구당했을 때에 낭패감을 느끼게 되는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한데다가 연구방법에 대해서까지 무지하니까 논문을 쓰는데에 시간과 정력은 무진히 소비하면서도 결과는 만족치 못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는 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고, 또한 이 시련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편법을 취하는 경향을 부채질한다.

그 편법에는 대개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여러 논문에서 얼마만큼씩 발췌하여 편집하는 부정한 수법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이 작품의 내용만을 간추려서 지극히 도식화된 비평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다. 이런식으로 쓰여진 논문이 학문적인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실은 이같은 내용적인 측면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외형적인 면에서부터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논문은 어떻게 시작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맺는 것이라는 논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서있지 않는 학생이 많다. 그래서 왕왕이 결론으로 제시할 내용을 서론에서 미리 밝혀서 본론과 결론에서는 서론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 일쑤이고, 아니면 서론에서 입증하겠다고 한 명제가 은연중에 기정사실화하여 그 이후에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등 여러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로는 인용과 전거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각양각색이어서 논문으로서 외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같이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을 데리고 곧장 전문적인 학문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 이같은 결함은 학생들 자신만의 불찰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영문학의 대학과정이 교양의 수준을 크게 넓어설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대학원에서의 전문연구과정은 질적인 면에서 앞의 것과 판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입생에게 입문과정을 두어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사리로나 교육적으로나 타당할 것

이다. 여기에 본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이과목은 영문과 대학원 입과생들로 하여금 영문학자가 되기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학문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을 쌓게끔 하는데에 그 설치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목적에 맞추어 이하에서는 첫째 영문학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은 어떤 것인가, 둘째로 영문학 연구를 위해 익혀야 할 기초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상술 하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언급하여야 할것은 영문학자에 대한 정의이다. 이것은 곧 영문과 대학원생의 본분이 무엇이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히 영문학 공부를 더 하고싶다든지, 아니면 대학의 강단에 서고 싶다는 등의 막연한 동기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대학원을 대학의 연장이나 아니면 대학교수 양성과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부족이 이들의 대학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한 큰 원인이 된다.

영문과 대학원은 영문학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리고 영문학자란 간단히 말해서 영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영문학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인데, 그는 그같은 목적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달성하려 한다. 즉 그는 작품내나 또는 작품외의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인 논증방법을 통하여 작품에대한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을 기초로 한다는 것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다는 것이다. 영문학자는 막연한 인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밝히며, 또한 그 결과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도록 그 증명과정에 논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한 문학애호가와 영문학자를 구분해 주는 점이다.

이와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영문학과 비평가와의 관계이다. 영문학 연구와 비평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는 선을 긋기가 어렵지만, 굳이 구분을 하면 영문학연구는 주로 작품에 대한 지식추구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비평은 가치평가가 주가 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평에는 비평가의 문학적 신념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나, 영문학 연구에는 연구자의 엄정한 중립성이 요청된다. 그러나 영문학과 비평가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일 것이다. 그래서 F.W. Bateson은 대학원생이 지향할 바는 「학자 비평가(scholar-critic)」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역할을 겸하더라도 둘중에 우선해야 할것은 학자적인 것이다. 사실 대학원생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학자적인 태도가 결여된 채 선부른 문학적 신념이나 이념으로 무장되어 모든 문학작품을 획일적으로 논단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2. 기본지식

이 부분에서는 영문학연구에 어떤 분야들이 있고, 문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또 영문학을 연구하는데에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본다.

(1) 문학연구의 네가지 유형

문학 연구는 문학 작품의 어떤 측면을 주 연구 대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의 하나*에 따르면 문학 연구는 대체로 네

* James Thorpe, *Literary Scholarship*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4), p. 12.

개의 큰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언어학(linguistics),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 문학사(literary history), 문학 비평(literary criticism)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역시 Thorpe가 편집한 *The Aims and Methods of Scholarship in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New York: MLA, 1970)를 기초로 하여 이들을 설명하겠다.

a. 언어학

언어학(linguistics)의 목적은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넓고 깊은,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다.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언어학은 문학 연구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와 문학자의 언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범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William G. Moulton은 그 차이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문학자가 어떤 문화권에서 높이 평가되는 고급 언어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반하여 언어학자는 언어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용례에 제한받지 않고 언어의 모든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문학자가 고급 사회(advanced society)의 문학을 우선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반하여 언어학자는 고급 사회나 원시 사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의 언어에 고루 관심을 갖는다. 셋째, 문학자는 쓰여진 언어로 보존된 글(writing)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서 언어학자는 글보다도 말(speech)에 보다 근본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렇듯 언어학은 문학 작품 그 자체의 어떤 요소나 어떤 가치를 일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학 연구와는 구별되는 과학의 다른 한분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학이 근본적으로 표현과 의사전달의 매체로서의 언어의 구조와 작용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학 연구의 한 유형으로서의 언어학의 비중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문학 작품에서의 낱말의 의미를 연구하는 의미론적 분석이나 문체의 특성과 그 효과를 연구하는 문체론적 분석은 언어학의 연구 방법을 응용하여 가능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미론(semantics)과 문체론(stylistics) 외에도 과거에 사용한 언어의 형태론(morphology)과 통사론(syntax)의 이해를 돕는 역사 문법(historical grammar), 낱말의 발음의 변천을 알게 해주는 역사 음운론(historical phonology), 언어의 지역적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방언학(dialectology)등 많은 종류의 소위 응용 언어학이 실제로 문학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b. 본문비평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은 문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초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유형의 문학 연구라도 문학 작품 자체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연구는 가능한한 가장 완전한 본문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문 비평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본문 비평이 문학 연구의 중요한 한 유형이라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쇄가 되어 나온 책은 당연히 작자가 쓴 내용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하여 인쇄된 책의 본문에 의문을 갖지 않는 태도에서 아마도 비롯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책들의 본문 내용이 작자가 실제로 쓴 작품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같은 작품이지만 여러가지 版本(edition)에 따라 그 본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유감스럽게도 거의 예외가 없는 일반적 현상인 것이다.

작가는 구둣점으로부터 크게는 긴 문장이나 문항(paragraph)의 탈락, 첨가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는 다양하며 때로는 작품의 이해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쇄 과정에서의 오식, 원고 자체의 부실, 작자의 추가 원고 수정, 편집 과정에서의 내용 변경 탈락등 여러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Shakespeare 작품의 Folio 및 Quarto판의 차이는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유명한 예이다. Laurence Sterne의 *Tristram Shandy*의 경우 첫 출판 100여년 후 Henry Morley에 의하여 약 3,000곳의 내용 변경 및 오식이 발견된 사실이나, 현대에 있어서도 F. Scott Fitzgerald의 *The Great Gatsby*의 경우 1925년도 초판과 1953년도 *Three Novels*판 사이에는 125군데의 중요한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이와 유사한 많은 경우의 대표적인 한두 예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많은 주요 작가들, 예를 들면 Sterne, Melville, Hawthorne 등의 작품들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편집 교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각각 다른 판본에 따른 문학 작품의 이러한 본문의 차이나 오식이 얼마나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지는 짐작키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다른 판본에 따라 초반과 중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Fitzgerald의 *Tender Is the Night*의 경우나, 마지막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Stephen Crane의 *Maggie*와 같은 경우는 다른 판본에 따른 본문 내용의 차이가 작품의 해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한다.

문학 작품을 작자의 마음으로부터 독자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여 조그만 착오에 의하여도 쉽게 왜곡될 수 있는 민감한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의 목적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왜곡을 최대한 줄이며 작자가 의도한 가능한 그대로의 내용, 혹은 작자의 의도에 가장 접근하는 본문의 내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보존된 자료 자체의 검증, 일정 기간 동안의 해당 작품의 모든 판본을 수합하는 일, 해당 작품 본문의 단순 전송(simple transmission)과 복합 전송(complex transmission)의 검토, text의 확립이 궁극적으로 가장 완벽한 판본의 복사(facsimile)여야 하는가 「비평적」 판본(“critical” edition)이어야 하는가, 또 당시의 철자본이어야 하는가 현대 철자본이어야 하는가의 선택등,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은 본문 연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본문 연구 자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러한 연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은 어떤 판본이 현대적 기준에 의하여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발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초 지식을 근거로 문학 작품의 문학적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두가지 문학 연구의 유형이 문학사와 문학비평이다.

c. 문학사

먼저 문학사(literary history)는 어떤 기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특수한 언어로 이루어진 문학에 나타난 어떤 인간 집단의 표현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문학 연구의 분야이다. 즉 문학사는 문학 작품을 어떤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상황하에서 인간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문학 예술의 독특한 형태를 설명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문학사가는 문학 작품이 창조될 당시의 여러가지 상황, 즉 작품과 관련된 작자의 경험, 당대의 사상과 전통적 관습, 역사적 사건의 배경, 언어와 문화의 복합적 환경 등에 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사가는 그의 자료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통하여 그것의 생성 과정, 형태, 의미, 다른 것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들려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사가의 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두가지 중요한 쟁점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 첫째는 문학사가들이 기록하고 해석해야할 재료(material)의 본질문제요 그 둘째는 사실 자료(factual data)의 수집자요 해석자로서 문학사가의 역할의 한계 문제이다.

문학사가는 먼저 재료가 되어야 할 문학적 사건(literary event)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문학적사건은 다른 문학적 사건과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는가에 대한 일종의 가설을 세워야 한다. 문학적 사건의 정의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비평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창작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오직 그것이 쓰여질 때의 일회적 사건이며, 나중의 수정 보완, 그것에 대한 해석 평가 등은 오직 그 일차적 사건과 관련하여 문학사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차적 사건이다.

문학사가의 기본적인 임무는 그의 연구범위 내에 드는 모든 문학예술 작품, 즉 문학 비평에 의하여 확인된 모든 일차적 및 이차적 사건들을 모아서 최소한 어떤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모든 작품을 마치 구슬을 꿰듯 다른 작품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배열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완결된 문학 작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작가와, 경험의 재료들을 공급한 문화와,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대중과, 또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 그것을 읽은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히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한 작품은 어떤 연대순적 선후 관계로만 다른 작품과 관련을 맺는가? 아니면 그러한 관련성은 인과적이어서 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창조하고 형성케 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그 도움을 주는 원인은 문학 작품에 내재한 것인가 문학 외적인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료 수집자 및 해석자로서의 문학사가의 역할의 한계 혹은 범위를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과거의 문학 작품들을 발견 정리하여 연대순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저자에 관한 사항 등의 문맥에서, 작품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문학사의 기본 자료에 대한 설명과 서술의 기능을 뜻한다.

두번째 단계는 과거의 문학 작품들을 발견 정리하여 기본자료에 대하여 서술할 뿐 아니라 각 작품이 앞선 작품들에서 받은 영향과 그 후의 작품들에게 끼친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문학 작품들간의 상호 영향, 특히 작품들 간의 인과관계적 요소들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첫 단계의 한계를 넘어선다.

세번째 단계는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의 작업 뿐만 아니라 각 작품의 source를 그것을 창조한 작가의 경험에 비추어, 그리고 작가가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문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각 작품의 독자(혹은 어떤 독자층)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독자가 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인 관심의 확대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새로운 문학사의 접근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그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시간 개념과 연관된 태도로서

문학적 사건을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신화, 상징, 가치 등의 추상 개념을 통하여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태도에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문학사가의 이해를 심화·확대하여 주는 좋은 점이 있지만 시간 개념의 상대성의 강조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을 모호케 함으로써, 따라서 객관적인 역사적 진실의 한계를 모호케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태도는 문학사가보다는 문학비평가에게 더 적합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다시 문학사가의 임무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의 재료가 되는 문학작품은 정지된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적 생명체로 다루어져야 되고, 문학사가의 관심은 인쇄된 문학 작품의 고정된(static) 형식과 내용에만이 아니라 작품의 모든 창조 과정에 주어져야 된다고 요약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모든 창조과정을 살피는데 있어서 문학사가들은 문학작품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는데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 즉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의 한 인간집단의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문화(culture), 그런 생활 양식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 지식보다는 상상력의 영역에 관여하는 민속 신앙이나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의 어떤 집단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상(ideas)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학을 창조케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여러가지 사상은 문학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문학에 의하여 발전 강화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일상의 경험에 밀착되어 있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은 아마도 문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철학적 사상이 얼마나 깊고 광범한 영향력을 문학에 미치는가는 세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Puritanism, Catholicism, Deism, Socialism, Communism, Rationalism, Transcendentalism, Existentialism, Darwinism, Freudianism, Marxism...등 몇몇 대표적 사상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문학과 얼마나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학사가는 이 모든 주요 사상들과 그가 다루는 문학 작품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자면 먼저 문학사가가 수행하는 두가지 형태의 작업을 구분해야 한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다. 그 두가지 작업은 역사적 연구(historical research)와 역사적 비평(historical criticism)이다.

역사적 연구는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문학적 사건들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립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연구에 종사하는 문학사가는 마치 과학자처럼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에 대한 어떤 가설을 가져고 있어야 한다. 그런 문제점은 작가의 태어난 장소나 연도같은 사소한 것일수도 있지만 위대한 작가일 경우 그런 사소한 것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여하튼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적 연구가(historical researcher)는 문학적 혹은 사실 기록적 증거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문학적 증거 자료에는 문학 작품의 텍스트 자체인 일차적 자료와 문학 작품에 관한 그 이외의 자료인 이차적 자료가 있으며 문학적 증거는 작품 자체에 내재하는 내적 증거와 그 외의 자료에서 얻어지는 외적 증거로 분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역사적 연구는 일차적 자료와 내적 증거에 기초를 두되 경우에 따라 양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역사적 비평은 대체로 종합적이고 주관적이지만 문학적 자료보다는 역사적 자료를, 문학적 자료라 하더라도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자료를, 평가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문학 비

평과 구분된다. 그러나 역사적 비평가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들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구상되어 쓰여지고 발표되었는가, 발표될 당시의 상황들이 그작품들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작품들이 다른 작품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전체적인 흐름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등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문학 비평가들의 심미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역사적 연구와 역사적 비평의 방법론적 차이를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전자는 과학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일을 하는 한편 후자는 문학 예술가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종합하고 해석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사가는 이처럼 작업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분석적, 과학적인 방법 또는 주관적, 종합적, 예술적인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의 문학적 기록의 의미와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 설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d. 문학비평

문학 작품의 문학적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본격적인 문학연구의 유형은 두말할 필요없이 문학 비평(literary criticism)이다.

비평이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문학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비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문적 노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취향, 인상, 주관적 반응, 감수성등과 관련된 어떤 판단행위를 뜻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비평은 그 내용이 옳다고 혹은 그르다고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진술(statement)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점이 바로 그런 비평이 학문적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문학 비평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널리즘 비평(journalistic criticism or reviewing)과 학문적 비평(scholarly or academic criticism)이 그것이다. 저널리즘 비평은 주로 당대의 문학을 대상으로 그 가치나 질의 우열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근본적으로 가치평가적(evaluative)이고 비판적 혹은 판정적(judicial) 성격의 비평이다. 반면에 학문적 비평은 학문적 연구의 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문학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나 판정보다는 폭넓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문학 연구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학 비평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뜻하는 것은 저널리즘비평이 아니라 학문적 비평이다. 그러나 학식(scholarship)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고 결국 그것을 심화하는데 기여한다는 학문적 비평의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비평 개념이다. 그 전까지의 비평은 대체로 비판적 혹은 판정적 비평(judicial criticism)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judicial criticism은 비평가의 안목(taste)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안목이란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세워진 숙련된 기술을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학문적 비평은 지식의 초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련한 비평가가 안목이나 가치 판단에 있어서 허점을 드러낼 때 그것은 대체로 문학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Northrop Frye는 1922년 전후의 소위 새로운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비평을 예로 들어 judicial criticism과 학문적 비평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에 대한 judicial criticism은 매우 다양하였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 시기의 가장 탁월한 작품들의 대부분을 병적이고 퇴폐적인 문학적 불체비즘 등등으로 매도한 것이다. 그들의 생

각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만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작가로 생각하는 Eliot와 Joyce같은 이 시기의 작가들에 대하여 많은 학문적 비평이 행하여져 왔다. 이 학문적 비평의 일반적인 방향은 1922년에 진레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것을 문학에 도입한 것처럼 보인 작가들이 사실은 매우 전통적인 작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가들을 매도한 비평가들의 잘못은 그들의 안목이나 판단에 있어서의 실패가 아니라 문학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이었다. 그들은 *Ulysses*나 *The Waste Land*를 가능하게 만든 문학의 전통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문학이 이런 종류의 일 역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 Eliot와 Joyce의 중요성이 확립된 것은 찬반 양론적 가치 판단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문적 비평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인 것이다.*

Frye의 글을 길게 인용한 것은 그것이 학문적 비평의 특성, 그 기능, 학문적 비평가의 태도와 임무등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많은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의 결론부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학문적 비평의 일차적인 기능은 문학 작품과 그 작가를 칭송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학문적 비평은 앞에서 설명한 다른 유형의 문학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문적 비평은 작가의 권위, 모든 작가의 일급 작가로서의 가능성,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등을 전제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

학문적 비평이 과거의 문학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시대에 무엇을 전달해줄 수 있는가를 표현하려는 하나의 당대적 노력이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문학을 그 본래의 문맥에서 연구하려는 역사적 태도를 중시하는 것은 문학의 이해 증진을 위한 체계적 연구라는 학문적 비평의 그 일차적 기능 때문이다. 학문적 비평이 현재를 중시하는 당대적 태도와 과거를 존중하는 역사적 태도를 공히 갖추고 있는 반면에 *judicial criticism*은 과거의 문학에 관심하는 역사적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게 보통이다. 그것은 *judicial criticism*의 경우 비평가들이 대체로 당대의 실제적, 관습적 안목이나 취향을 그들의 안목의 기준으로 삼고 비판습적인 것은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의 관습을 따르는 과거의 문학 작품들은 그들에게 비판습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학문적 비평의 기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학문적 비평가들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비평가가 무엇보다도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그의 임무가 문학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나 판정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문학작품에 대한 가능한한 정확하고 정당한 이해와 그 이해를 전달하는 힘이다. 비평가가 주요 문학 작품을 대할 때 평가와 판정을 받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비평가라는 Northrop Frye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judicial criticism*의 비평가가 자신의 안목을 근본 기준으로 삼고, 시인이나 작가로서 *judicial criticism*에 종사할 경우 자신의 작품이나 문학관을 가장 중요한 비평 기준으로 삼는데 반하여, 학문적 비평가는 특정의 문학 작품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문학에 비추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 첫 원리로 삼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문학 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훈련시키고 문학적 경험과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

*James Thorpe, ed., *The Aims and Methods*, p. 74.

하여 그는 주요 고전 작품은 물론 현대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새로 발표되는 문학연구의 내용을 계속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문적 비평의 많은 부분은 문학 작품의 시적 의미를 추론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른바 논평(commentary)이라고 볼 수 있다. 논평은 물론 비평의 본질적 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비평이 포함해야 하는 문학 작품의 의미에 대한 정당한 문학적 문맥에서의 파악에는 이르지 못한다.

「정당한 문학적 문맥」이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문학 작품은 그 작가의 문학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작품의 의미는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즉 그 작가의 전체적인 문학 세계의 문맥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당대작가들 혹은 당대 문학의 특징, 그 공통성 및 대조성,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라는 문맥의 중요성이다. Wordsworth의 시나 Dreiser의 소설을 다룰 경우, Coleridge등 당대의 영국 낭만파 시인들, 또는 Stephen Crane등 당대의 미국 자연주의 작가들과 이들과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셋째, 둘째의 문맥을 종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연관성의 문맥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문학 작품은 독자적으로 갑자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학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적인 각 작품은 서로 격리되어 갇힌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열려 있는 것이다.

문학에 대한 이러한 유기적, 역사적 조망은 문학의 전통에 대한 의식과 무엇보다도 문학의 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사실 문학 비평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문학의 구조에 대한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의 구조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은 왜 문학을 만들어내며, 문학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며, 문학과 문화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등의 보다 크고 근원적인 문제를 논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학연구의 네가지 유형중 문학비평과 문학사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에 가치의 서열을 매기는 그런 식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 다른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문학 연구 역시 그 결과는 자체의 고유한 목적과 그 목적의 성취라는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각 연구의 가치는 목적의 성공적 성취도, 그리고 그 목적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인접학문과의 관계

문학은 총체적인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문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완벽을 기하려면 그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모든 분야와의 연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문학과 특별히 관련이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James Thorpe편 *Relations of Literary Study*(NY: MLA, 1967)를 참고로하여 약술하기로 한다.

a. 문학과 역사

문학에 있어서의 역사는, 작품과 그 작가, 그 독자, 그 장르, 그 시대, 그 장소, 그 언어등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작품과 기타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그 시대의 취향과의 관계, 문체의 역사와의 관계도 포함한다. 나아가 작품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학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등 지성사의 여러 부문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b. 문학과 신화

문학이 신화에서 비롯한 점을 생각할 때 문학과 신화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는 단순히 문학의 소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학이다. 그러므로 신화에 대한 연구는 문학연구의 중요한 일부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자체로 하나의 문학 연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과학의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는데, 이때에 신화는 사회의 율법이나 종교적인 진실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신화를 비평가는 우화적으로 또는 원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해석법은 상호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보충적이다. 신화비평은 특수한 종류의 문학이나 특수한 문학의 한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구조적 원리들, 즉 관습, 장르, 원형(또는 반복되는 이미지)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c. 문학과 전기

새로운 문학적인 전기는 한 작가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 지각, 정서등 다시 말해서 그의 실제적인 상상력을 기술하려는 노력이므로 문학비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특히 새로운 전기는 정신분석학적 방법을 통하여 작가의 행동을 설명하고 그 동기를 밝혀 줌으로써,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관건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요한 참고가 된다.

d. 문학과 심리학

심리학에서도 문학과 특별히 관련이 깊은 것은 정신분석학이다. 문학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쓰여졌고 또 어떤 동기에 관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러한 동기들에 대해 인간이 생각해 낸 유일한 이론이 정신분석학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이 정서적인 갈등을 표현한다든지 잠재적인 테마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프로이트적 이론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정신분석학은 작가의 가장 심층부에 깔려있는 관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 어떻게 수용되고 판단되는가에 대한 역동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e. 문학과 사회학

문학과 사회학은 두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는 장르, 시기, 문체, 문학적 유행, 등 문학의 특수한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에 사회학적 범주들을 적용하는 문학 사회학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어느정도의 사회학적인 지식은 필수적이라는 문화 일반론적인 측면이다. 후자의 경우 특히 문학도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들로는 아노미(anomie), 소외, 세대갈등, 도시화, 과학기술, 관료주의의 역할, 그리고 대중사회등이 있다.

한편 문학사회학자는 문학과 사회체제, 작가의 사회적 위치, 소재로서의 사회와 사회문제, 그리고 성공의 사회적 결정요인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문학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f. 문학과 종교

문학을 연구하는 자가 목적하는 바는 작품자체가 갖고 있는 뜻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지만, 작품의 뜻은 독자와 유리 된 채 그 나름대로 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마

음악 정서와 어울려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작품에는 아무리 소극적일지라도 작가의 세계관이나 종교관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또 독자는 독자 나름대로 종교관을 갖고 있으므로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데에는 종교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 문제는 작품과 평가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작품을 어떤 문맥에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개입된다.

g. 문학과 음악

모든 예술이 미적 쾌감을 준다면, 시는 언어를 형식에 맞춰 배열함으로써, 음악은 소리를 형식에 맞춰 배열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같은 경험을 하게 한다. 오늘날 시와 음악은 서로 유리되었지만, 본래는 밀접히 연관되었던 형식들이다. 음악의 형식적 모형이나 기교들은 일반적으로 시의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갖지만, 앞으로의 문학연구에는 음악적 유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술어 및 문학용어

학문적 술어나 문학용어는 영문학연구에 필수적인 도구들로서 이것들은 영문학도에게 많은 불필요한 설명들을 피할 수 있는 편리를 주며 그럼으로써 의사전달을 용이케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이 술어와 용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에 결과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불분명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혼란과 오해를 빚게 된다. 특히 서지, 체재, 본문비평등에 관한 술어들은 학생들에게 생소한 것이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술어들은 Richard D. Altick and Andrew Wright의 *Selected Bibliography for the Study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6th. ed. (New York: Macmillan, 1978) 뒤에 설명과 함께 잘 모아져 있으므로 그것만 숙지시켜도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genre, prosody, rhetoric, 그리고 문학사와 비평에 관한 용어는 M. H. Abrams저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th ed.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1981)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시킨다.

(4) 참고도서

어떤 연구과제에 대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하려면 우선 그 과제에 관하여 어떤 참고도서를 찾아 보아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지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한 연구는 우연에 의존한 부실하고 신빙성 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참고도서에 관한 지식은 학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방지해 준다.

대학원생에게 특히 유용하게 만들어진 참고도서로서는 앞서 든 Richard D. Altick and Andrew Wright의 *Selected Bibliography for the Study of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6th ed. (New York: Macmillan, 1978)와 F.W. Bateson and Harrison T. Meserole의 *A Guide to English and American Literature*. 3rd ed.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6)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참고도서에 관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두 책을 근간으로 하여 각분야와 시기별로, 또 주요 작가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추린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하의 목록은 알파벳 순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열거한 것임)

a. Dictionary

1. *A New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ed. James A.H. Murray et al. 10 vols. in 15. Oxford, 1888~1928. ("NED" or "OED")
2. *A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on Historical Principles*, ed. William Craigie and James

- R. Hulbert. 4 vols. Chicago, 1938~44. ("DAE")
3. Partridge, Eric. *A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 5th ed. 2 vols. London, 1961.
 4. Wentworth, Harold, and Stuart Berg Flexner.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New York, 1960.
 5. Brewer, Ebenezer Cobham. *Brewer's Dictionary of Phrase and Fable*. 9th ed. rev.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6. *The Oxford Dictionary of Quotations*, 2nd e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7.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ed. M. Cary et al. Oxford, 1949.
- b. Bibliography
1. *The Cambridge Bibliography of English Literature*, ed. F.W. Bateson. 4 vols. Cambridge, 1940. Volume V (Supplement), ed. George Watson. Cambridge, 1957. ("CBEL")
 2. Blank, Jacob. *Bibliography of American Literature*. New Haven, 1955~. ("BAL")
 3.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Books and Articles on the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PMLA*, 1922~.
 4. *Poole's Index to Periodical Literature, 1802~81*. Revised ed. Boston, 1891. Supplements, 1882~1907. 5 vols. Boston, 1887~1908.
 5.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 (1900~)*. Minneapolis (later New York), 1901~.
- c. Handbook
1. *The Oxford Companion to English Literature*, ed. Paul Harvey. 3rd ed. Oxford, 1946.
 2.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ed. James D. Hart. 4th ed. New York, 1965.
 3.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Revised ed. New York, 1953.
 4. *Cassell's Encyclopaedia of World Literature*, ed. S. H. Steinberg. 2 vols, New York, 1954.
 5. Benet, William Rose. *The Reader's Encyclopaedia*. 2nd ed. New York, 1965.
 6. Preminger, Alex, et al. *Encyclopa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1965.
- d. Literary History
1. *The Oxford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Oxford, 1945~.
 2. *The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ed. A.W. Ward and A.R. Waller. New York and London: Putnam's 1907~33. 15 vols.
 3. Baugh, Albert C., et al. *A Literary History of England*. New York, 1948.
 4. Spiller, Robert E., et al., eds.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3rd ed. 2 vols. New York, 1963. ("LHUS")
 5. Quinn, Arthur Hobson, et al. *The Literature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1951.
- e. Biography
1.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ed. Leslie Stephen and Sidney Lee. 63 vols. London, 1885~1900. (Later reprinted in 21 vols.)
 2. *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 ed. Allen Johnson and Dumas Malone. 20 vols. and index. New York, 1928~37. Supplements One and Two. New York, 1944, 1958. ("DAB")

3. 기초훈련

이 부분에서는 주로 논문작성의 요령을 다룬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논문의 체제 및

인증방법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면에서 이부분도 지식교육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지식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숙달시킨다는 의미에서 앞의 부분과 달리 「훈련」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리고 인용 및 인증방법은 고려대학교출판부편, 「논문작성법」(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78)와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New York, 1977)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

(1) 논문의 기본형식

논문은 그 유형에 따라 형식도 서로 다르며, 또 같은 유형의 논문 중에서도 쓰는 사람의 의도와 취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논문이든 처음과 중간과 끝, 즉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본구조는 다 같다.

서론에도,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범위의 한정, 용어의 개념규정, 또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이 발표한 주장을 간추려 소개하는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고 불가결한 것은 문제의 제기이다. 즉 필자가 이 논문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가 서론에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본론은 그것을 논증하는 과정이며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논증의 결과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2) 인용요령

직접인용은 원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또 인용은 일차자료(primary source)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삼행 정도의 짧은 인용문은 지문에 넣는 것이 좋다. 이때 인용문에는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인용 부분이 길면 지문에서 따로 떼어 쓸 수밖에 없다. 이때는 인용부분의 지문에서 위 아래로 한줄씩 비우고 왼쪽 기선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두 세칸 들여서 쓴다. 인용문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생략할 때 영어의 규칙에 따라 삼점(...)을 하는 것이 좋다. 생략부분으로 문장이 끝날 경우는 사점(....)을 한다.

(3) 각주 및 후주요령

국문 단행본의 경우는 저자, 책명과 출판사항 그리고 면수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부분은 쉼표(,)로 나뉜다. 이때 책명에는 「」를 하고 출판사항은 ()를 한다. 출판사항은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순으로 적고 출판지와 출판사 사이는 쌍점(:)을 한다.

예: 정문길, 「소의론 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100면.

계속간행물의 기사나 논문은 필자명 다음에 따옴표 안에 표제를 쓰고 쉼표를 친다. 그다음 간행물 명칭에 「」를 하고 쉼표를 찍은 다음 권, 호수를 적고 ()안에 출간연도와 달을 쓰며 또 쉼표 다음에 면수를 적는다.

예: 유봉영, “상고사에 대한 나의 의견.” 「白山學報」, No. 16 (1974.6), 47-64.

위의 국문자료에 대한 각주요령은 영문논문의 체제를 준용한 것임으로 영문각주요령도 비슷하다. 그러나 단행본의 경우 책명은 이탤릭으로 표시하며 타이프로 치거나 손으로 쓴 글에서는 책명 밑에 밑줄을 긋게 되어 있다.

예 1 :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1), pp. 73-74.

예 2 : John R. Frey, "America and Her Literature Reviewed by Postwar Germany," *American-German Review*, 20, No. 5 (1954), 4-6.

계속간행물인 경우 면수가 하나일 경우는 p.9 또는 p.22 등으로 쓰지만 2면 이상일 경우는 p.를 빼고 22-40, 또는 133-151등으로 쓴다.

(4) 참고문헌목록 작성요령

참고문헌은 국문의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의 경우는 alphabet순으로 쓴다. 국문 단행본의 경우 각주와 다른 것은 저자명과 책명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출판사항에 ()를 없앤다. 그리고 면수도 자연히 없어진다.

예 : 玄相允. 「朝鮮儒學史」. 서울 : 민중서관, 1949.

계속간행물의 경우에도 필자명과 표제 다음에 마침표를 한다.

예 : 丁來東. "白樂天詩의 社會性." 「亞細亞研究」, 8, No. 2 (1965.6), 233-44.

영문의 경우 단행본은 국문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 몇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저자의 이름을 last name부터 쓰며, 성다음에 성표를 치고 first name을 쓴다. 책명에는 물론 밑줄을 친다.

예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계속간행물의 경우도 필자명은 last name 다음에 성표를 하고 first name을 쓴다. 그리고 필자명과 표제 다음에 마침표를 하는 것은 국문의 경우와 같다.

예 : Frey, John R. "America and Her Literature Reviewed by Postwar Germany." *American-German Review*, 20, No. 5 (1954), 4-6.

4. 강의 계획표

주	강 의 내 용	시간 배당	비 고
1	Introduction	3	
2~4	문학연구의 유형 ① 언어학(linguistics), ②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 ③ 문학사(literary history) ④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	2 2 5	문학비평의 여러가지 접근법의 실제연습
5~6	문학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① 역사 ② 신화 ③ 전기 ④ 심리학 ⑤ 사회학 ⑥ 종교 ⑦ 음악	3 3	

7~8	슬어 및 문학용어 ① 서지, 제책 및 본문비평에 관한 슬어 ② 장르, prosody, rhetoric, 문학사 및 문학비평에 관한 용어	2 4	비슷한 개념의 용어들의 정확한 구분을 위한 연습
9~10	참고 서적 조사	6	library research 실습
11~15	논문작성 ① 논문의 기본형식과 인용요령 ② 각주 및 후주 요령 ③ 참고 문헌 목록 작성 요령	3 6 6	실제 논문작성 연습 실제 연습 실제 연습
16	Review	3	

참 고 문 헌

- Abrams, M.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1.
- Altick, Richard D. *The Art of Literary Research*. New York: W.W, Norton & Comapny, 1963.
- Altick, Richard D. and Andrew Wright. *Selected Bibliography for the Study of English and American Liturature*. 4th ed. New York: McMillan Co., 1971.
- Bateson, F.W. *The Scholar-Critic*. London: RKP, 1972.
- Bauline, Lester A. ed. *A Mirror for Modern Scholars*. New York: The Odyssey Press, Inc., 1966.
- Bell, Inglis F. and Jennifer Gallup. *A Reference Guide to English, American, and Canadian Literature*. Vancouver: Univ. of British Columbia Press, 1971.
- Boulton, Marjorie. *The Anatomy of Literary Studies*. London: RKP, 1980.
- Doyle, Paul A. *Guide to Basic Information Sources in English Litera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6.
- Markman, R.H. and M.F. Waddell. *10 Steps in Writing the Research Paper*. Woodbury: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65.
- Roberts, Edgar V. *Writing Themes About Literature*. 3r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73.
- Thorpe, James. *Literary Scholarship*.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4.
- . ed., *The Aims and Methods of Scholarship in Modern Languages and Literatures*. New York: MLA, 1970.
- . ed., *Relations of Literary Study*. New York: MLA, 1967.

(※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수혜로 쓰인 것임)